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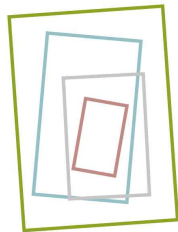
왜 오늘날 세종과 《삼강행실도》인가?

조선왕조는 고려시대의 불교를 대신해 유교를 새로운 지배 이념으로 하고, 나라를 윤리와 도덕이 바탕이 된 문화국가로 만들려 하였다. 그리고 '삼강오륜'을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 중 으뜸으로 제시하였다.

세종은 글을 모르는 백성도 '삼강'을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게 그림을 넣어 《삼강행실도》를 만들었다. 삼강과 오륜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한 윤리이다. 세종은 글자를 모르는 백성도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원했다. 이것이 오늘날 세종과 《삼강행실도》를 되돌아보는 이유이다.

Joseon Dynasty was a country of culture on the basis of ethics and humanity. Thus, King Sejong published 《Samgang haengsil do》 containing both text and illustration for the uneducated to enhance their comprehension of humanity.

'Three Bonds and Five Disciplines of human relations' is the ethics of loving and respecting each other. King Sejong loved all of his people. He expected even the illiterate to live as decent human beings. This is why Sejong and 《Samgang haengsil do》 are reflected at a present time.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주)12512
경기 의주시 세종대왕면 영봉로 26-10
sejong_cha.go.kr

세종대왕 탄신 627돌 기념 특별전시

세종, 백성 속으로 — 《삼강행실도》
Sejong, into the people - Samgang haengsil do

2024
5.14
|
7.14

국기유산청 공농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

불교의 효, 유교의 효



부모의 은혜가 크고, 효도해야 한다는 점은 불교와 유교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실천하는 방법은 달랐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부처에게 비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하였다. 유교에서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곁에서 잘 모시는 것이 더 큰 효도로 보았다. 조선이 세워진 후 사람들의 생활은 불교적인 것에서 유교적인 것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Buddhism said that the best way to repay parents' love is to pray to Buddha,
Confucianism taught that the best way to repay parents' love is to take care of them at a close distance.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Bulseol daebo bumoo eunjuggyeong
(Sakyamuni's Teaching on Parental Love)
1799년(정조 23) | 종이메릭 | 34 × 22 cm | 목판본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삼강행실도 권1 효자도 三綱行實圖 卷1 孝子圖
Samgang haengsil do
(Illustrated Guide to the Three Relations)
1740년(정조 14) | 종이메릭 | 37.0 × 21.5 cm | 목판본 | 전남대학교도서관

세종,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편찬하다

“백성들이 임금과 신하·부모와 자식·남편과 아내의 큰 인륜에 친숙하지 아니하고, 거의 다 타고난 천성天性에 어두워서 항상 각박한 데에 빠졌다. … 내가 그중 특별히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¹⁾을 만들어 … 어리석은 남녀들까지 다 쉽게 보고 느껴서 분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 『세종실록』, 세종 14년(1432) 6월

King Sejong said, “I compiled the stories of great examples who practiced humanity in this illustrated guide, hoping even illiterates to emulate those good models” - June, 1432.

● 삼강 三綱

부위자강 父父子綱
아버지는 자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효)

군위신강 君爲臣綱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충)

부위부강 夫爲婦綱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열)

A fathers should set a good example for a child,
A king should set a good example for a subject,
A husband should set a good example for a w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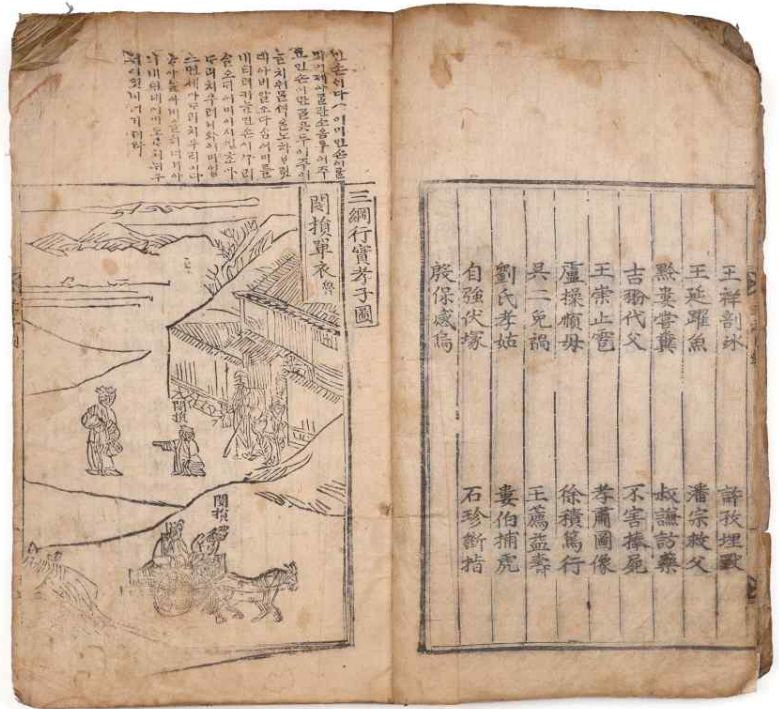


오륜행실도 권2 충신도 五倫行實圖 卷2 忠臣圖
Oryun haengsil do
(Illustrated Guide to the Five Relations)
1859년(철종 10) | 종이메릭 | 30.2 × 19.2 cm | 목판본 | 전남대학교도서관



오륜행실도 권3 열녀도 五倫行實圖 卷3 烈女圖
Oryun haengsil do
(Illustrated Guide to the Five Relations)
1859년(철종 10) | 종이메릭 | 30.2 × 19.2 cm | 목판본 | 전남대학교도서관

사 진 자 료



《삼강행실도》 〈효자도〉 민손단의 (민손의 홀웃)
 《三綱行實圖》 〈孝子圖〉 閔損單衣

1740년(영조 16) | 종이에 먹 | 37.0×21.5cm | 목판본 | 전남대학교도서관 소장

1490년(성종 21)에 간행한 산정언해刪定諺解 《삼강행실도》를 1740년(영조 16)에 다시 간행한 것이다. 산정언해 《삼강행실도》는 1434년(세종 16)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에 한글을 넣고, 330명의 고사를 105명으로 간추려 3권 1책으로 다시 묶은 것이다. 한글은 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림의 위 여백에 넣어졌다. 펼쳐진 면은 효자 민손閔損(노나라)이 자신을 학대하던 계모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한 고사이다.

성종 21년에 새롭게 편찬된 삼강행실도는 세종대 삼강행실도를 약 1/3로 줄인 것이다.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에 각 35명을 추려서 넣었다. 한글은 한문 본문을 요약해서 그림 위 여백에 올렸다.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림과 한글을 한 면에서 보며, 그림의 내용을 더욱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간행한 9년 뒤 한글을 창제(세종 25년, 1443)하였다.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하려고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세종의 뜻은 후대 왕들이 실현시켰다.

단종 즉위년(1452)에는 한글이 들어간 《삼강행실효자도》가 간행되고, 성종 12년(1418) 이전에 한글이 들어간 《삼강행실열녀도》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들은 세종이 편찬한 삼강행실도의 <효자도>와 <열녀도>에 한글을 넣은 것이다. 이 책들은 오늘날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성종 21년(1490)에 간행된 산정언해刪定諺解 《삼강행실도》로 알 수 있다.



《삼강행실도》 〈효자도〉 석진단지 (석진이 손가락을 자르다)
 《三綱行實圖》 〈孝子圖〉 石珍斷指

조선후기 | 종이에 먹 | 37.5×24.8cm | 목판본 | 대전시립박물관 | 시문화유산자료

1490년(성종 21)에 간행한 산정언해 《삼강행실도》를 조선후기에 다시 간행한 것이다. 판화는 한 화면에 사건의 순서대로 여러 장면을 넣어 고사의 전개를 이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정조대 간행된 《오륜행실도》부터 가장 핵심적인 한 장면만 넣는 것으로 바뀐다. 펼쳐진 면은 효자 석진(石珍)이 손가락을 잘라서 약을 만들어 아버지를 살린 고사이다.

● 삼강 三綱

- 부위자강 父爲子綱 : 아버지는 자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효)
- 군위신강 君爲臣綱 : 임금의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충)
- 부위부강 夫爲婦綱 :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열)



오륜행실도 五倫行實圖

1859년(철종 10) | 종이에 먹 | 30.2×19.2cm | 목판본 | 전남대학교도서관

1791년(정조 21)에 활자를 이용하여 5권 4책으로 간행한 《오륜행실도》를 1859년(철종 10)에 목판을 이용하여 5권 5책으로 다시 간행한 것이다. 《오륜행실도》는 한글이 한문과 같은 비중으로 들어간 최초의 행실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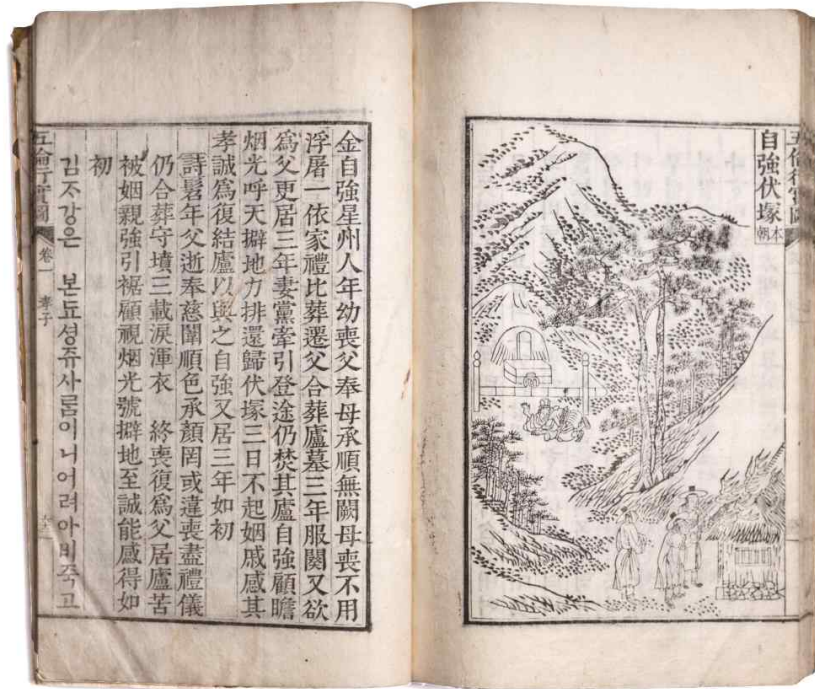
조선왕조가 심혈을 기울인 행실도의 편찬은 정조대에 와서 삼강오륜을 모두 담은 《오륜행실도》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성종대에 편찬된 《삼강행실도》 105명과 중종 13년(1518)에 편찬된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48명을 합치고, 3명을 추려내어 150명으로 새롭게 편집한 것이다.

《오륜행실도》에서는 이전 행실도와 다르게 한글을 한문과 같은 비중으로 넣었다. 한문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전문을 그대로 번역하였고, 한글의 위치 역시 그림의 위 여백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한문과 같이 본문의 위치에 넣었다. 세종이 시작한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한 정치’는 정조대에 이르러 《오륜행실도》로 완성되었다.

● 오륜 五倫

- 부자유친 父子有親 :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 군신유의 君臣有義 :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 부부유별 夫婦有別 :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 장유유서 長幼有序 :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 붕우유신 朋友有信 :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륜행실도》에는 한글 외에 그림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정조대 이전의 행실도 그림은 화면에 여러 장면을 그려 넣어 이야기의 전개를 알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조대 오륜행실도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한 장면만을 그려 넣는다. 이 그림들은 세종대 이래 도화서의 화원들이 그렸기 때문에 그 시대의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판화의 변천사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오륜행실도》 판화에서는 김홍도의 화풍이 나타난다.



《오륜행실도》 권1 〈효자도〉 자강복총 (자강이 무덤에 옆드리다)

《五倫行實圖》 卷1 〈孝子圖〉 自強伏塚

1859년(철종 10) | 종이에 먹 | 30.2×19.2cm | 목판본 | 전남대학교도서관

1791년(정조 21)에 활자로 간행한 《오륜행실도》를 1859년(철종 10)에 목판본으로 다시 간행한 것이다. 《오륜행실도》는 한글이 한문과 같은 비중으로 들어간 최초의 행실도이다. 이 책은 전체 5권 5책 중 〈효자도〉(1권)에 해당하며, 펼쳐진 면은 효자 김자강金自強(조선)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불교식 장례 대신 유교의례에 따라 무덤을 만들고 여막에서 삼년상을 치른 것을 칭찬하는 고사이다. 백성들의 불교적인 생활을 유교적인 생활로 바꾸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물들의 의복이 성종대 산정 언해 삼강행실도와 비교되어 복식의 변천사도 알 수 있게 한다.



《오륜행실도》 권3 〈열녀도〉 미처해도 (도미의 부인이 남편과 함께 도망치다)
 《五倫行實圖》 卷1 〈孝子圖〉 自強伏塚

1859년(철종 10) | 종이에 먹 | 30.2×19.2cm | 목판본 | 전남대학교도서관

1791년(정조 21)에 활자로 간행한 《오륜행실도》를 1859년(철종 10)에 목판본으로 다시 간행한 것이다. 《오륜행실도》는 한글이 한문과 같은 비중으로 들어간 최초의 행실도이다. 이 책은 전체 5권 5책 중 〈열녀도〉(3권)에 해당하며, 펼쳐진 면은 남편과의 사랑과 의리를 지킨 열녀 도미부인(백제)에 관한 고사이다.